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2.(월) 배포 2024. 1. 22.(월) 14: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달의 수목원 1월'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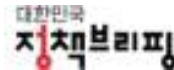
- 찬바람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1월의 대표식물 '갯버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담은 '이달의 수목원 1월'을 22일 공개했다.

대표식물은 버드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물이 흐르는 개울가나 산골짜기에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 '갯버들'이다. 부들부들한 털을 달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강아지 꼬리와 닮기도 하였다. 수목원의 찬바람을 곳곳이 견디며 봄을 기다리고 있는 갯버들의 겨울눈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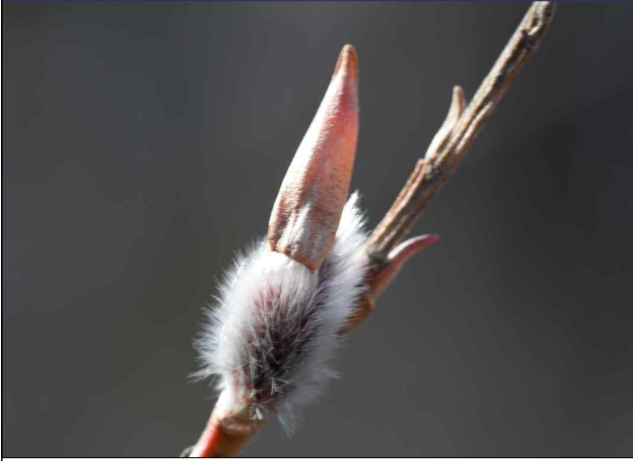
이 밖에도 1월 이달의 식물로 흰말채나무, 미역고사리, 분비나무, 눈썹백이 선정됐으며, 위 식물들은 강한 추위에도 사계절 내내 푸른 잎과 아름다운 수피를 가지고 있어 겨울철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들과 다르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 전시원실	책임자	실 장	이재선 (054-679-2711)
		담당자	주 임	김정인 (054-679-0536)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달의 수목원

1月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초화원과 돌틈정원에서 볼 수 있는 1월 대표식물 갯버들겨울눈